

亞洲大學에서의 컴퓨터 教育

金 哲
(亞洲大 化學工學科)

1. 序 論

“현대 사회를 특징지워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컴퓨터와 컴퓨터에 관련된 기술이다. 현대의 컴퓨터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즉 가공할 만한 속도, 기억 용량, 융통성 및 범용성 등으로 인해서 산업 발전은 물론 인류의 복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국면뿐 아니라 다른 국면에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 컴퓨터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앞으로 컴퓨터의 활용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 믿어진다.

미래의 사회를 우리는 한마디로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이 정보화 사회는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일찌기 「미래의 충격」과 「제3의 물결」 저자인 Alvin Toffler 는 오늘날 정보 혁명이 급진적으로 전개되어 현대 사회의 구조가 산업 사회를 벗어나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고 이같은 새 물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머지 않아 후진 사회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준비이다. 이러한 혁명 시대에 잘 대처해 나가는 데에 필요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질 있는 인력이다. 인력 양성을 위해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기술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할 능력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의 컴퓨터 교육 강화의 의의, 우리나라 대학 컴퓨터 교육의 현재와 지향 방향을 개관하고 교육 강화 2대 목표 중의 하나인 亞洲大 컴퓨터 교육의 현황과 교육 효과의 분석, 그리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교육 개선 및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大學에서의 컴퓨터 教育의 強化

현대를 일컬어 흔히 정보화 시대, 정보화 사회 혹은 컴퓨터 혁명 시대라 한다. 이는 산업, 기술 및 경영 등 사회 각 분야의 발전에 컴퓨터가 필수 불가결한 수단과 도구가 되면서 컴퓨터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단과 도구인 컴퓨터 관련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이에 필요한 절적인 전문 컴퓨터 기술자는 물론 컴퓨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용자 중심적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비하여 적절한 컴퓨터 교육의 개선 및 강화 대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기술은 이미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여 왔고 아울러 각종 정보의 처리

를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도 크게 진보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는 연구, 산업, 기술 개발, OA, MIS 등에 이 기술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심도가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고 있다. 그간 컴퓨터 자체의 기술은 물론 컴퓨터의 활용도 크게 제고되어 왔고 컴퓨터 설치도 매년 20~6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90년대 말에 기업체가 보유할 컴퓨터는 20,000여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경우 컴퓨터의 활용에 있어서 효과와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따라서 필요 이상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컴퓨터 관련 기술 개발 및 응용을 위한 수준 있는 컴퓨터 인력은 정보화 시대를 주도하게 되었고,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당당한 공급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컴퓨터 인력의 양성 현황은 어떠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컴퓨터 인력을 전문가적 컴퓨터 인력(전산 전문 요원)과 사용자 중심적 컴퓨터 인력(전문적 최종 사용자)으로 나누어 보기로 한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명확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온 것도 사실이나 컴퓨터의 이용 환경과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 패턴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전산 요원은 컴퓨터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주변 기술 개발과 운용을 위한 인력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관리자, 시스템 분석가, 프로그래머, 오퍼레이터, 전공수 및 하드웨어 기술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전문가의 집단적 통솔, 전산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부터 하드웨어의 조작 및 보수 유지를 비롯하여 직접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도 기본 요건으로 갖추어야 한다.

컴퓨터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컴퓨터 전문 요원의 공급 부족 및 분야별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면서부터는 최종 사용자를 자신 스스로의 시스템 개발에 참여시키고 실용화에서 발

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사용자 중심적 컴퓨터 인력의 개념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소규모 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산 시스템의 효과적 이용을 위하여 자신의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함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숙련,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컴퓨터 전문 요원으로부터 보조 수단을 정확히 제공받기 위하여 전문 요원과 의사 소통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컴퓨터, 데이터 및 통신 등이 핵심적 요소가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이들 요소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하는 컴퓨터 인력 양성이야말로 정보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단기간의 훈련만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요원보다는 이론적 지식과 함께 기초적인 훈련까지를 받아야 하는 컴퓨터 인력 양성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대학이다. 여기에 대학 컴퓨터 교육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어야 하며 이미 당면하고 있는 컴퓨터 인력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3. 大學 컴퓨터 教育의 現況 및 發展 方向

우리나라 대학 컴퓨터 교육의 현황은 어떠한가? 우선 전산 전문 요원에 대한 교육부터 논의해 보기로 한다.

1985년 현재 59개 대학에 전산 및 전산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배출된 졸업생은 약 5,300명, 재학생은 약 12,000명에 이르고 있다. 교육을 위하여는 교육을 담당할 자질 있는 교수 요원이 있어야 하고, 교육에 필요한 수단과 도구(means and tools)가 필요하다. 전산학 분야의 교수 요원 수가 약 150명이라는 통계 수자는 학생 대 교수의 비가 80에 도달하고 있음과 대학에 따른 교수 수의 불균형을 고려하면, 경우에 따라 교수 1인이 약 100명의 학생을 교육하여야 한다는 조사 자료가 있다. 이는 교육의 질에 앞서 양적으로 교수 요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귀

결이다. 더우기 이론과 함께 실습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보조 인력(조교, 기사 등)의 부족은 '69년도에 西江大 등 수 개 대학에서 전산교육을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짧은 컴퓨터 활용 역사로 미루어 당연한 현실이고 이는 교수 요원 수의 부족에 가중되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시설 면에서도 현재 대학에 설치된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 용량이 대체로 1MB 미만으로 중·소형이고 교육 전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생들에게 충분한 실습의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터미널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괄 처리 방식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습 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전산학 교과 내용이 주로 선진국인 미국의 교과 내용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강의 내용 면에서는 비교적 필요한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기업체에서 전산과 출신 신입 사원에게까지도 일정한 수준의 전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사 후 3~6개월 이상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은 교육 방법의 문제결과 함께 시설 미흡으로 인한 실습 부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이 사용자 중심적 요원, 즉 비전산학 전공 컴퓨터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이고 더우기 자질 있는 교수 요원 및 시설의 부족 이외에 공통 교과 과정에서도 포트란이나 코볼 등의 언어교육이나 간단한 전산 입문 교육 이외에 특징 있는 내용을 볼 수 없고 강의 시간 및 학점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부족한 형편이다.

비전산학 전공 학생 교육 현황에 대해 60개 대학의 이공계 및 경영학 교수에게 의견을 물었던 바(총 800여 매 중 110매 응답), 대부분의 응답자가 시설 부족과 현재 교과과정 및 강의 시간, 학점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었다. 전반적으로 대학 컴퓨터 교육이 개선, 강화되어야 하겠다는 의견이었으며, 산학협동을 통하여 교육에 필요한 시설 이용의 기회를 늘리고 또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실제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의견도 많은 응답자들의 반응이었다. 또한 다수의 응답자는

CAD/CAM 등 신기술에 대한 교육도 강조하였고 기타 다양한 교과목 내용을 전공 분야별로 도입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근래에 기업체가 전산 부분의 전산 인력을 요구하는 추세에서 보더라도 전산과 출신자 일색이었던 수 년 전과는 달리 분야별 전문 지식을 갖춘 타 학과 출신자를 더 채용하였다는 보고 내용이 있는 것은 앞으로의 비전산학과 학생들에 대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컴퓨터 요원 양성 기관이 있으나 견고한 이론적 배경하에 실시되는 대학교육이 유능한 컴퓨터 요원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본을 이룰 것이다. 대학에서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자질 있는 교수 요원의 확보, 시설의 확충, 그리고 잘 설계된 교육 내용이 중요하다.

자질 있는 교수 요원의 확보는 유능한 교수를 유치, 영입하고 계속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통한 기존 교수들의 자질 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질 있는 전산 인력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들을 대학으로 유치하는 데에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을 것이 예측되어, 우선 당연한 과제는 기존 교수들의 자질 향상이 곧 교수 요원의 확보 방안으로 보다 응이한 방법이라 하겠다. 컴퓨터에 관한 지식은 2~3년을 주기로 하는 발전 추세에 따르지 않으면 낙후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계속교육을 통한 질의 유지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선진국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단기간 집중적인 강좌를 실시하는 것도 계속교육의 한 방법이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를 달성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시설 확보이다. 특히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면서 재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립대학은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는 정책적인 기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므로 정부 차원의 특별 지원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다. 교수 요원의 질적 향상이 기대지더라도 양적 확보와 시설 투자는 절대 인력과 예산 부족이라는 제약 조건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므로 여기에 적절한 교과과정의 설정과 교육 방법의 개발, 효

올적인 교과과정 운영을 기하는 데에 컴퓨터 교육 강화를 위한 노력을 헌신적으로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믿는다.

전산학 관련 교과과정은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비전산학 전공 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과 교육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 역할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언급했거니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최종 사용자가 문제 해결에 더욱 기여를 한다는 것은 폭 넓은 컴퓨터 응용의 세계에서 이미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

4. 亞洲大에서의 컴퓨터 敎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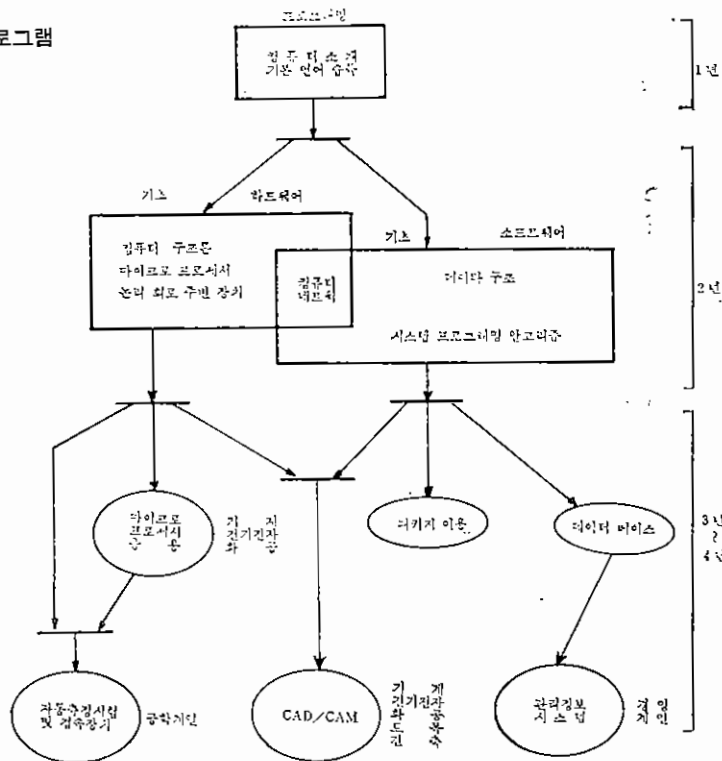
‘창의력 있고 적응력 높은 고급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특히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컴퓨터 교육과 외국어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亞洲大는 컴퓨터 교육 강화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 컴퓨터 敎育 強化 및 改善 方案

전산 전문 요원을 위한 교육은 최소한 체제상으로는 선진국의 것과 유사하며 관련 문헌 등도 많으므로 여기서는 전문가적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교육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최종 사용자에 대한 컴퓨터 교육 목적은 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컴퓨터 사용을 통하여 응용하자는 데에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전공 분야 지식을 현실 문제에 적용함에 있어서 종래의 많은 제약들이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공 분야에서도 기본적인 개념 및 기초 사항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전공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초 교육이 수행되어야 하겠다.

다음으로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입장이므로 컴퓨터 교육은 이론보다는 실습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은 응용력 배양을 염두에 둔 실습 위주의 기초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각 전문 분야

〈표 1〉 교육 프로그램



〈표 2〉 소요 컴퓨터 및 부속 장치

교과목명	프 로 그래밍	기초 소프트웨어 기초 하드웨어	용 용 과 목			
			패키지 이용	CAD/CAM	관리정보 시스템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자동계측 시험 및 접속 장치
컴퓨터 종류	퍼스널 컴퓨터	슈퍼 마이크로 또는 중형 컴퓨터	슈퍼 마이크로 또는 중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중형 컴퓨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습 장치,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시스템
		터 미 널				
응용 소프트웨어 및 기타 기기			각 전공 분야 해 당 패키지(시물 레이션 통제 등)	CAD/CAM 패키지, CAD용 단말기기	관리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서 그 특성에 따른 교과목들을 개설 운영하여야 하겠다.

공동 기초 과목은 컴퓨터에 접해 보지 않은 학생들로 하여금 전공 분야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해야 하므로 우선 컴퓨터에 친숙해지고 컴퓨터를 구사하여 간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으로 컴퓨터의 제반 구성 요소 및 작동 원리를 비교적 깊이 있게 취급함으로써 전공 분야의 문제에 대한 컴퓨터 응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페트리 넷(Petri Net)로 표시한 비전산 전공 학생에 대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시설은 〈표 1〉, 〈표 2〉와 같다.

이 프로그램은 사각형으로 표시된 모든 계열 공통필수 과목들과 타원으로 표시된 분야별 전공선택 과목의 내용들로 크게 구분된다. 또 과목들 사이의 하향선은 내용 면에서 본 선수 과목 관계를 나타낸다. 모든 계열에서 컴퓨터 교육은 프로그래밍으로 시작하며 이 과목은 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에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이 교과목에서는,

- ① 컴퓨터에 친숙해지게 하고 이의 기본 구조, 기초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시켜야 한다.
- ②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를 숙달하게 하여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효율성과 신뢰성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기법도 소개되어야 한다.

③ 컴퓨터 주변 특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컴퓨터 그래픽스(computer graphics) 등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user friendly system)에 빨리 숙달되도록 잠재력을 양성시켜야 한다.

프로그래밍 과목의 교과목 내용으로는 먼저 컴퓨터 구조, 작동 원리 등을 간단히 소개한 다음 베이직(BASIC), 포트란(FORTRAN), 코볼(COBOL), 파스칼(PASCAL) 등 프로그래밍 언어 중 과 특성에 따라 2종을 선택하여 교육한다. 이 언어들에 숙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프로그래밍 기법을 습득하며 동시에 데이터 처리, 수치 계산 등 전산'응용의 기본 개념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수료한 학생들은 간단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초보적인 소프트웨어 이용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컴퓨터를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 주 4시간을 부여한다면 총 52시간의 교육(1개 학기를 13주로 환산)을 받게 되며 컴퓨터 실습실에서 강의와 실습을 동시에 실시하고, 또 이 시설을 야간에도 개방한다면 학생들은 약 30건 이상의 대소 과제들을 수행(강의 1~2시간당 과제 1건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된다.

두번째 단계로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수강한 이후 기초 하드웨어와 기초 소프트웨어 과목을 공통필수 과목으로 제안한다. 이 과목들, 즉 사각형 내에 열거한 사항들은 각 과목에서 취급되어

야 할 내용들이며 이들이 컴퓨터를 구성하는 광범위한 요소들이다. 이들은 다음 단계인 컴퓨터 이용 기술의 단순한 사용자가 아니고 이를 각자의 전문 분야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기술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컴퓨터 이용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 사용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 이 과정을 거쳐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정규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의 특징을 살리는 방안일 것이다. 만약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필수 학점 제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전공 특성에 따라 기초 소프트웨어나 기초 하드웨어만을 필수로 하는 방안이나 두 과목 내용을 통합하여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또 이들 과목 개설시 각 분야 사이의 상대적인 비중 조정, 교재 개발, 교안 작성 등에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세번째 단계로서 <표 1>에서 타원으로 표시된 컴퓨터 이용 기술 분야 외의 교과목들을 제공한다. 표에서 타원은 교과목이 아니고 하나의 분야를 나타낸다. 이들은 각 과 특성에 따라 각 분야의 일부 또는 몇 개 분야의 내용을 통합하여 1개 과목으로 제공될 수 있다. 또 이들 중 많은 사항들이 각 전공 분야(기계, 화공 등) 과목들의 내용과 수평 또는 수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설 학년 및 학기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공학 문제 해석 성격을 가지는 과목들은 표에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CAD의 일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역으로 CAD는 기존 공학 과목들 중에서도 조금씩 취급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위 프로그램이 확립되기 전이라도 이들 기존 과목에서 관련 사항들을 취급하여야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CAD 관련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체의 관심도 지대한 반면 국내 인력 공급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 교육의 조기 도입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산 관련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아주 빠르니만큼 그 교육 프로그램도 2~3년 정도를 간격으로 해서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컴퓨터 敎育 現況 및 効果

亞洲大에서는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1983년도에 교육 내용 및 소요 시설을 위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여 앞의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기본 소요 시설을 갖추면서 우선 1학년(이공계 전학생과 경영·사회계 학생 일부)에 2학기에 걸쳐 프로그래밍 강의를 필수 과목으로 개설 실시하고 있다. 프로그래밍 과목 교육시에는 컴퓨터의 전부를 눈 앞에 두고 전원 스위치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학생들이 직접 조작하도록 개인용 컴퓨터(PC)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주당 2시간 중 1시간은 실습을 의무화하여 컴퓨터의 기본 언어, 조작 등에 사용자 중심적 시스템에 숙달되도록 하고 이 시설은 야간에도 개방하여 실습 및 과제물 수행에 효과를 높이고 있다. 2~4학년 교육을 위해서 각 학과에 컴퓨터 연계 과목의 개설을 확대하여 산업공학, 경제, 경영 등의 학과에서는 코볼, 전산 개론 및 수치 해석 등의 과목, 기계공학과에서는 CAD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공과 연계된 컴퓨터 응용 과제물의 증대도 컴퓨터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컴퓨터 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노력으로 컴퓨터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 인문·사회계에도 컴퓨터 교육이 확산되었고 1985년도에 국어국문학과에 개설된 프로그래밍 강좌는 이러한 노력의 좋은 효과라 할 수 있다.

학생의 교육과 실습, 교수(대학원생 포함)의 연구 지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컴퓨터 교육 및 전산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亞洲大의 전자계산소는 운영부와 교육연구부로 구성되어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Burrough A3F, 1835, Prime 550 II 등 슈퍼 미니와 미니 컴퓨터, IMS 8000S 마이크로 컴퓨터, 그리고 Cybourg II 및 IQ-1000(MSX) PC 등 다양한 기종(주기억 용량 약 9MB, 디스크 925MB)과 단말기 등 주변 기기 및 각종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갖추고 있으며 용량 및 사용 시간의 대부분이 연구 및 교육 지원에 할당되고 있는 것은 본교 컴퓨터 서어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내 PC 경진 대회 개최, 경기도 교육위원회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 및 업무 지원, 각종 컴퓨터 시스템

이용 교육 등이 전자계산소 주관 아래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지역 사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段階的 컴퓨터 教育의 強化

교육 강화 방안에 제시된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전공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실습을 통한 교육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5. 結 言

대학은 전산 전공은 물론 비전산 전공 학생들

이 전문가적 최종 사용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컴퓨터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이다. 亞洲大는 이러한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컴퓨터 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도출,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전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컴퓨터 교육의 실현에 필요한 각종 시설 확보 노력도 아울러 경주하고 있으나 사학의 운영에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